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1974~2022

한혜영¹ · 남서진² · 김대인³ · 김미영⁴ · 김승희⁵ · 김혜영⁶ · 지순진⁷ · 윤여란⁸

¹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의학도서관, ²한양대학교 의학학술정보관, ³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⁴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⁵강동성심병원 의학도서관, ⁶한국의학도서관협회, ⁷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도서관, ⁸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from 1974 to 2022

Hye Young Han¹, Seojin Nam², Dae In Kim³, Mi Young Kim⁴, Seung Hee Kim⁵,
Hea Young Kim⁶, Soon Jin Ji⁷, Yeo Ran Yoon⁸

¹Nowon Eulji Medical Center, Eulji University Medical Library, Seoul, ²Hanyang University, Medical Library, Seoul, ³Yonsei University Medical Library, Seoul, ⁴Korea University Medical Library, Seoul, ⁵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Medical Library, Seoul, ⁶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Medical Library, Seoul, ⁷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edical Library, Seoul, ⁸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National Center for Medical Information and Knowledge, Osong, Korea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s in academic papers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Journal of Korea Medical Library Association. The research data included 245 academic papers published between 1974 and 2022. The analysis criteria were four areas: research production volume and research type, research topic, and author status. For the research data, the researcher used a method of checking individual bibliographies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a type of quantitative bibliometric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production was divided into 10-year publication cycles, and the highest number of papers was produced in 1994~2004, with a total of 77 papers. The production volume of papers has been maintained at an average of 36 papers, excluding publication cycles when the number of publications was rapidly high. Second, the type of research is initially published mainly as research bulletins and gradually changes to research papers. There are 99 research papers, and 38 have been produced since 2004. Third, the research topics in the early period from 1974 to 1992 were collection management, library management, and practical research, accounting for 80% of the production during that period. From the 2000s, practical research was the most popular, and data organization/collection management was the least popular research topic. Fourth, there were 44 co-authored research papers, which was low compared to 199 single-authored papers. However, due to the recent generalization of joint research, production has been slightly increasing since 2010. [J Korean Med Libr Assoc 2023;50(1,2):39-53]

Keywords: Research Trends, Content Analysis, Bibliometrics, Network Analysis,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Received November 21, 2023, Revised December 27, 2023, Accepted December 29, 2023

Corresponding author: Hye Young Han

Nowon Eulji Medical Center, Eulji University Medical Library, 68 Hangeulbiseok-ro, Nowon-gu, Seoul 01830, Korea

Tel: 82-2-970-8445, Fax: 82-2-970-8003, E-mail: hyeyoung@eulji.ac.kr

본 논문은 2023년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2023년 10월 26일 제 55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수정하여 작성됨.

Copyright © 2023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서 론

한국의학도서관협회(Korea Medical Library Association, KMLA)는 1968년 6월 18일 회원 35명을 시작으로 협회를 발족하여, 현재 전국 의과대학, 병원, 연구소에 속한 152개 도서관이 상호협력하는 전문협회로 성장하였다. 창립 이래 의학도서관의 수준 높은 서비스와 의학사서들의 자질 향상을 꾀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그 일환으로 전문학술지인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Journal of Korea Medical Library Association, JKMLA)를 발간하고 있다. 1974년 『한국의학도서관』으로 시작된 학술지는 회원의 소식과 실무정보를 공유하는 통로였고, 2007년 『의학정보관리』로 학회지명이 변경되면서 학술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후 2014년 협의회가 협회로 승격됨에 따라 학회지명을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로 변경하고,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을 다져 나갔다.

이와 같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는 1974년 창간호의 4편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243편이 생산되었고, 의학사서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이 축적된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 연구자 및 학자를 비롯하여, 도서관계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학계의 정보와 동향을 제공하고 최신 지견을 습득할 창구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간 50주년을 맞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권의 1호부터 제49권의 1,2호에 이르는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전수 조사하고, 연구 생산량 및 연구 유형, 저자 현황, 연구 주제의 기준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여 일정한 특성과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결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의학사서의 역할과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추출

연구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데이터 수집 및 추출, 전처리, 그리고 분석 및 시각화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데이터 수집 및 추출 단계는 연구 대상 기간(1974~2022) 내 발행된 전체 243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단위의 분석 데이터는 6명의 전문가가 합의된 기준에 따라 수동으로 추출하였다. 분석 기준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논문의 생산량, 연구 유형 및 저자의 분포, 연구 주제를 대상으로 규정하였다[1-6]. 첫째, 논문의 생산량은 출판된 논문의 양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임의로 출판 간격을 나누었다. 연도별 연구 유형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10년 주기로 구분하였고, 연구 주제별 분포에 대해서는 세분하여 5년 주기로 1기에서 10기까지로 세분화하였다. 둘째, 연구 유형은 표 1과 같이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의 투고 규정에서 정의한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저자분석 시 소속 관련해서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회원 기관명에 따라 추출한 기관명으로 통일하였고 기관의 유형을 학교, 병원, 연구소, 그리고 기타(비회원)로 분류하였다. 공동 연구 참여에 관해서는 개별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수를 1명에서 5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넷째,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는 각 논문에 대한 주제 분류와 함께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주제 분류는 NCS 국가직무능력표준[7]의 문헌정보관리 기준을 차용하여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총 5개의 대분류와 22개의 중분류로 나누었다. 키워드는 각 논문의 초록, 서론, 결론을 중점적으로 참고한 자연어 키워드[8,9]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 표목[10]을 참고한 통제어 키워드로 구성하여 논문당 4개에서 8개를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유형별 분석 기준

연구 유형	정의
연구논문	문헌정보학 및 의학도서관 관련 분야의 새로운 논문
총설	편집위원회의 위촉에 의해 특정 주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기술한 논문
연구단보	문헌정보학 및 의학도서관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 연구방법, 정책적 이슈 등에 대한 토의 보고
교육자료	의학도서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활용, 또는 새로운 교육 접근 방법 등에 관한 논문

표 2. 연구 주제별 분석 기준

대분류 주제	중분류 주제
자료 조직/장서관리	목록화 및 분류, 메타데이터/인덱스, 컬렉션 개발 및 관리, 정보 보존 및 폐기, 디지털 아카이빙
도서관 경영관리	도서관 정책 기획 및 마케팅, 도서관 예산 관련, 인적자원 관리, 도서관 역할 및 관련 법규, 유관기관 네트워크
이용자 서비스	참고봉사 및 연구지원서비스, 도서관 이용자 교육,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문헌정보 큐레이션
문헌정보 시스템	디지털 도서관 및 자동화, DB 운영관리, 정보 정책 및 저작권, 오픈 액세스 및 학술데이터베이스
실무연구 수행	도서관 및 관련 학문의 동향, 기술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학술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 사용자 행동 및 정보 탐색

2.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선정된 키워드를 정제하는 작업으로써 소문자 변환, 띄어쓰기 통일, 유사 키워드들의 대표어 선정 등을 진행하였다. 이는 수동으로 또는 데이터 정제를 돕는 오픈 소스 도구로 다양한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 유사한 값들을 병합해 주는 OpenRefine v3.7.6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정제된 자연어 및 통제어 키워드는 중분류 주제어와 함께 키워드 동시출현빈도 계산에 이용되었다. 이는 Python을 이용하여 VOSViewer에서 분석 가능한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키워드, 출현 빈도, 평균 출현 연도로 구성된 노드 파일과 키워드 대 키워드의 동시출현빈도가 계산된 링크 파일을 만드는 작업이다.

3.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연구 데이터는 다양한 분석 단위(출판 연도, 연구 유형, 공동연구 등)에 따라 논문에 대한 내용 분석과 자연어 및 통제어 키워드와 중분류 주제어에 대한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Scimago Graphica v1.0.36을 이용하여 다양한 그래프로 표현하였고, 생성된 노드 및 링크 파일을 VOSviewer v.1.6.18을 이용하여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이란, 두 키워드(네트워크의 노드) 간의 관계(네트워크의 링크)를 동시출현한 문헌의 수와 비례하게 표현하여 지적 구조 등을 파악하는 계량서지학적 분석 방법의 하나이다. VOSviewer는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의 주요 단계로써 노드 간의 링크 강도, 즉 유사도를 각 키워드를 2차원 네트워크 지도에 매핑 및 시각화하고 유사한 키워드들을 동일한 군집으로 클러스터링해 주는 공개 소프트웨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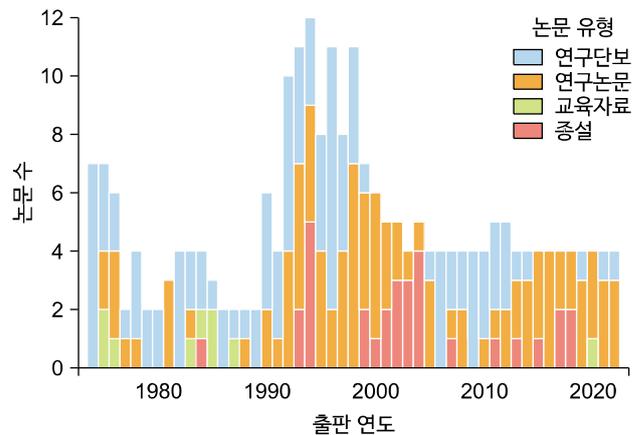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유형에 따른 연도별 논문 생산량.

결 과

1. 생산량에 따른 분석 결과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의 논문은 49년간 총 243편이 생산되었고, 그림 1과 같이 1992~1998년 6년간은 71편이 출판되는 등 논문 출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전 기간의 연간 논문 생산량이 평균 4.9편인 것에 비해 해당 기간은 연간 평균 10편을 출판하는 등 생산량이 높았다. 해당 기간을 제외한 출판 기간별 연간 출판물의 2.5배이다. 그리고 연구 주제는 유관기관 네트워크(9건), 디지털 도서관 및 자동화(15건), 관련한 학문의 동향에 관한 연구(9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기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주제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유형은 1994년을 기점으로 연구단보가 주로 출판되고 연구논문 및 교육자료가 일부 생산된 형태에서 연구논문으로 점차 변화하게 된다(표 3).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유형 중 연구단보가 104편(42.8%)으로 가장 많

표 3. 연구 유형에 따른 연도 주기별 논문 생산량(건수, %)

분석 기간	연도	연구단보	연구논문	교육자료	종설	논문 합계
1기	1974~1983	26 (25.0)	11 (11.1)	4 (44.4)	0 (0.0)	41 (16.9)
2기	1984~1993	26 (25.0)	13 (13.1)	4 (44.4)	3 (9.7)	46 (18.9)
3기	1994~2003	25 (24.0)	36 (36.4)	0 (0.0)	16 (51.6)	77 (31.7)
4기	2004~2013	23 (22.1)	13 (13.1)	0 (0.0)	7 (22.6)	43 (17.7)
5기	2014~2022	4 (3.8)	26 (26.3)	1 (11.1)	5 (16.1)	36 (14.8)
합계		104 (42.8)	99 (40.7)	9 (3.7)	31 (12.8)	243 (100)

표 4. 연구 주제에 따른 연도별 논문 생산량(건수, %)

분석 기간	연도	도서관 경영관리	문헌정보 시스템	실무연구 수행	이용자 서비스	자료조직/장서관리	논문 합계
1기	1974~1977	3 (6.3)	1 (2.0)	3 (4.7)	3 (10.3)	12 (23.5)	22 (9.1)
2기	1978~1982	6 (12.5)	1 (2.0)	3 (4.7)	1 (3.4)	4 (7.8)	15 (6.2)
3기	1983~1987	5 (10.4)	5 (9.8)	0 (0.0)	0 (0.0)	5 (9.8)	15 (6.2)
4기	1988~1992	5 (10.4)	3 (5.9)	9 (14.1)	1 (3.4)	6 (11.8)	24 (9.9)
5기	1993~1997	8 (16.7)	17 (33.3)	12 (18.8)	2 (6.9)	11 (21.6)	50 (20.6)
소계		27 (56.3)	27 (56.3)	27 (56.3)	7 (14.6)	38 (79.2)	126 (51.9)
6기	1998~2002	5 (10.4)	14 (27.5)	7 (10.9)	2 (6.9)	6 (11.8)	34 (14.0)
7기	2003~2007	6 (12.5)	0 (0.0)	9 (14.1)	3 (10.3)	3 (5.9)	21 (8.6)
8기	2008~2012	5 (10.4)	3 (5.9)	6 (9.4)	7 (24.1)	1 (2.0)	22 (9.1)
9기	2013~2017	2 (4.2)	6 (11.8)	8 (12.5)	3 (10.3)	1 (2.0)	20 (8.2)
10기	2018~2022	3 (6.3)	1 (2.0)	7 (10.9)	7 (24.1)	2 (3.9)	20 (8.2)
소계		21 (43.8)	24 (50.0)	37 (77.1)	22 (45.8)	13 (27.1)	117 (48.1)
합계		48 (19.8)	51 (21.0)	64 (26.3)	29 (11.9)	51 (21.0)	243 (100)

이 출판되었고, 연구논문 및 종설이 130편(53.5%)이고, 교육자료(3.7%) 순이다. 교육자료는 창간호부터 1993년까지 8편으로 소수 출판되었다. 『한국의학도서관』은 일부 제호에서 학술논문과 협의회 소식, 총회 회의록 등이 함께 게재되는 형태였다. 그러한 면에서 교육자료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가 의학사서들의 교육 및 실무 정보에 초점이 맞춰진 시기에 주로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의학정보관리』로 제호가 변경되면서는 학술지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투고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이때부터 논문의 편수는 4편으로 균일하게 생산되었고, 연구논문은 2000년대 들어서 총 39편이 생산되었다(그림 1). 2010년 한국의학도서관협회는 ‘의학사서’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하여 주제사서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려 하였다. 연구논문이 증가한 것은 협회가 의학사서의 평가항목에 추가점수를 부여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연구 환경을 조성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논문은

77편으로 초창기 20년간의 논문 편수 87편과 대동소이하였다. 특히 1994~2004년의 10년간의 논문 편수는 총 연구 생산량의 31.7%를 차지한다(표 3). 급격히 출판량이 많았던 3기(1994~2003)를 제외하고는 논문 편수의 합계가 분석 기간당 평균 42편으로 비교적 균일하다.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연구 주제별 출판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실무연구수행(37건)과 이용자 서비스(22건), 문헌정보 시스템에 대한 연구(24건), 문헌정보 도서관경영관리(21건) 순이었다. 그리고 자료조직과 장서관리에 대한 연구(13편)는 이전에 비해 현저히 연구적 관심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2. 저자 및 소속기관에 따른 분석 결과

1) 공동연구 현황

공동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지의 전체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단독저자의 논문은 199건으로 81.9%인데 비해, 2인 이상의 공동참

여 저자의 논문은 44편(18.1%)으로 낮게 나타났다. 논문에 참여한 전체 저자 중 공동연구 저자의 비율은 38.2% (123/322명)였다. 공동저자 연구물의 75% (33/44건)는 의학도서관 소속 저자들의 연구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는 4.5% (2/44건)에 불과하였다 (표 5). 의학도서관의 저자들 간의 공동연구 외에도 소수 이기는 하나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 간의 협업의 형태가 보여지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의학도서관 내 공동저자 참여 형태 중 2개 기관 이상의 저자가 참여한 경우는 총 24편이며, 학교도서관과 병원도서관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한 건은 전체 논문의 20.5% (9/44건)로 가장 많았다. 의학도서관과 외부 연구자 협업을 한 경우는 20.5% (9/44건)였고, 의과대학도서관이 협업한 경우 6편, 의과대학도서관 및 병원도서관과 한국의학도서관협회가 협업을 한 경우도 1편이 있었다. 이렇듯 서로 다른 기관과의 공동연구의 경우 의과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연구협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의과대학도서관이

의학 및 보건 연구자가 협업을 한 건은 3편, 의학이 아닌 대학도서관의 저자가 공동연구 한 건은 1편, 의학 및 보건학 연구자와 문헌정보학 연구자와 함께한 건은 1편, 문헌정보학 연구자와 연구소 도서관과 함께 한 건은 1편이었다.

논문 수에 있어 상위 기관인 의학도서관들의 경우도 단독저자의 논문이 더 많았는데, 공동참여 논문이 기관별 생산량 중 2편을 넘지 않는다. 특이할 점은 가톨릭 성의교정도서관은 타 기관의 2배 정도 많이 생산하였으나 31편의 논문에서 공동연구 비율은 12.9%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공동연구자 비율은 52.8% (65명)로 분석되었고, 공동참여 저자 논문은 연구논문 유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2010년대 이후에 43.2% (19건)가 생산되었다.

연구 논문은 종설이나 연구단보, 교육자료에 비해 저자간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이 요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주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Lee 등[11]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정보학 관련 연구가 공동연구의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한국의학도서관협지』의 경우도 2010년 이후 공동연구 중 63.1% (12/19)의 논문이 문헌정보학 시스템(6건)과 실무연구 수행(6건)에서 정보학의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공동연구는 협업을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하고 논문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 이점을 갖고 있다.

2) 기관별 생산량

기관별 기여도를 파악하고자 소속 기관에 따른 연구 생산량과 연도별 출판 분포를 분석하였다. 하나의 논문에 대하여 같은 소속의 저자가 참여한 경우 중복 카운트하지 않았고, 기관별로 5편 이상을 생산한 경우만 대상으로 집계하였다. 그리고 의학도서관협회의 회원기관이 아닌 소속의 저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로 연구 생산량을 볼 때 그림 2와 같이 상위 9개의 기관이 집계되었다.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에 소속된 저자가 32편으로 연구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였고,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도서관과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저자가 31편과 25편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뒤이어 한국의학도서관협회 단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15편이었다. 울산대학교 의학도서관과 계명대학교 의학도서관이 동수로 13편이었고,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팀과 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표 5. 기관 유형별 공동저자 참여 분포(건수, %)

기관 수	기관 유형 수	건수	
1	학교	13	
	병원	4	
	연구소	1	
	소계	18	
2	학교	3	
	병원	1	
	기타	2	
	소계	6	
	학교-병원	7	
	학교-연구소	1	
	학교-기타	4	
	학교-한국의학도서관협회	1	
소계	13		
3	소계	19	
	1	학교	1
	병원	2	
	소계	3	
	2	학교-병원	1
학교-기타	2		
소계	3		
5 이상	소계	6	
	4	학교-병원-기타-한국의학도서관협회	1
소계	1		
합계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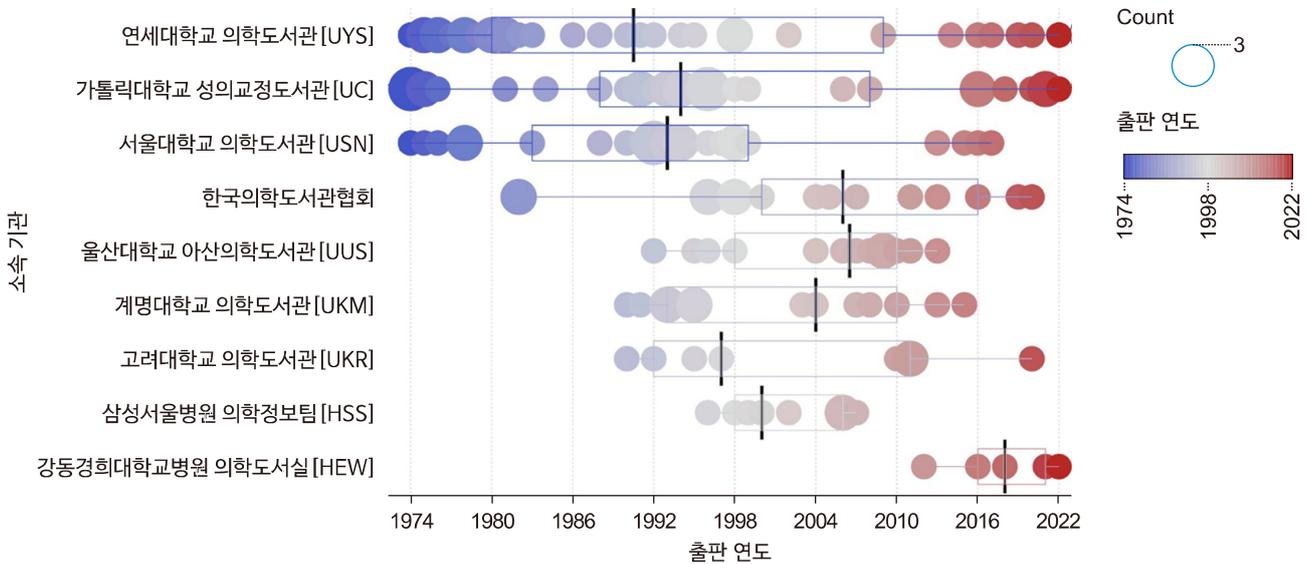


그림 2. 저자 소속 기관에 따른 연도별 참여 논문 수.

이 각 8편으로 같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학도서관에 소속된 저자는 5편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도서관,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은 출판 연도 내 전 기간에서 꾸준히 연구논문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중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도서관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왕성하게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은 초기부터 1980년대 초에 연구(13건, 40.6%)를 집중하여 발표하였는데,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초대 회장인 이우주 교수를 비롯하여 3~4대를 제외하고는 11대 회장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의 교원이 협회의 기틀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협회의 학술지 편찬 관련 업무를 맡는 편집분과 위원회의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사서들의 주도로 연구논문이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은 협회 사서들을 위해 문헌정보학계의 동향과 의학도서관에 도입할 실무 및 정책 아이디어를 연구단보와 교육자료에 주로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은 1990년대에만 연구논문 14편을 생산하였고, 협회의 학술분과위원회(현 학술위원회)의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소속 사서가 주축이 되어 연구단보와 교육자료를 게재하였다.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협회의 초창기부터 90년대까지 의학 사서들의 실무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통해, 학술지의

근간을 세웠다고 보인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는 1980년대 초기, 1990년대 중반에 논문을 주로 발표하고 200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학술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가 단체저자로 게재한 논문은 의학도서관협회 학술대회를 통해 소개한 외국저자의 연구물을 번역하여 발표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연구 주제는 당시 의학도서관에 소개되어야 할 최신 이론이나 시스템에 관한 것들이 주되었으며, 협회에 고문으로 활동하던 외부 저자의 연구 단보들도 있었다. 그중 의학정보관리와 MEDLAS와 MEDLINE에 대한 연구는 협회가 회원기관 간의 상호협력력을 통한 자료 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립 경위를 들여다보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명대학교 의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혹은 2010년대까지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팀은 1996~2007년까지 연구물을 생산하였다. 이들 세 개 기관은 디지털 도서관 및 온라인 목록, 이용자 서비스에 관한 주제의 연구를 주로 하였다. 관련 분야의 기술 변화를 소개하고, 업무 사례를 나누고 현황을 분석하여 회원 기관의 사서들에게 학술 정보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2012~2022년까지 거의 매년 1편을 게재하고 있다. 2016년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기획연구에 참여하고, 학술논문의 출판과 연구업적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에는 총 97개 기관의 저자가 논문을 발표하였고, 상위 9개 기관 외에 1편 이상을 발표한 도서관은 39개였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은 49개이며, 논문 수는 76편이었다. 상위 기관을 제외한 협회 소속 의학도서관 39개 기관 중 병원도서관은 27곳, 대학도서관은 8곳, 연구소도서관은 4개였다. 대학도서관은 상위 기관의 7곳을 포함하여 15개(31.2%) 기관이 논문에 참여한 것으로 볼 때, 병원도서관 27곳(58.3%)은 적지 않은 비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회원 소속인 병원도서관이 88개소인 것으로 볼 때, 논문을 생산한 기관 중 탈퇴한 4곳을 제외하면 병원도서관의 27.2%만이 논문을 생산하였다. 대학도서관은 51개소 중 15개(29.4%) 기관이 논문을 생산하여 병원도서관의 논문 발간율보다는 높지만, 절반에 해당하는 7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병원도서관 연구소 도서관은 13개소 중 30.7%의 비율로 참여하였다. 각 의학도서관 유형 중 논문을 발표한 기관은 각 유형별 도서관의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3) 기관별 연구 유형

저자의 소속기관의 유형에 따라 참여한 연구주제의 분포를 통해 연구 경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논문의 주제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논문에서 동일 기관 소속의 저자는 하나로 카운트하였다. 그림 3에서 보면 의과대학도서관 저자들의 연구는 주제 전체에서 고른 연구논문 생산량을 보여주었고, 실무연구수행(34건)과 자료조직/장서관리(35건)에 관한 연구

가 가장 우위에 있었고, 문헌정보시스템(24건), 도서관경영관리(29건) 순이었고, 이용자서비스(15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았다. 병원도서관 저자들의 연구는 실무연구수행과 도서관 경영관리가 각 15편으로 같았으며, 이용자서비스 연구를 11편 출판하였다. 그리고 문헌정보시스템(10건), 자료조직/장서관리(6건)에 대해서는 낮은 생산성을 보여주었다. 연구소 소속 저자들은 문헌정보시스템(3건)과 실무연구수행(3건)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의학도서관 협회의 비회원 기관 저자는 실무연구수행(31건) 관련 주제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학도서관 내에서도 소속기관의 유형에 따라 규모면이나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름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대학의 의학도서관은 분과별 서비스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업무 분장에 따른 사서들의 관심도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병원은 1인 사서가 도서관의 전반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므로 도서관 경영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상연구자의 학술연구지원을 위한 참고봉사와 관련 서비스 주제에 흥미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의 경우 문헌정보시스템과 실무연구수행의 주제의 논문을 주로 생산하였는데, 학술논문 출판과 유통 및 오픈 액세스 및 디지털 도서관의 기술, 학술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중 눈에 띄는 점은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의 실무연구이다. 당시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과학센터는 2014년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정보화 전략계획에 관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였다. 그러한 일환 중 하나로 의과학분야의 국가서지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당해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주요 실무연구 현황을 협회의 의학도서관 내 사서들의 업무 지원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에서 초청한 기타 기관의 연구자는 학계 혹은 도서관계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을 의학도서관 내 현장사서에게 이론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3. 주제에 따른 분석 결과

1) 주제분류별 분석

대분류와 중분류 주제 분포를 통해 거시적 연구 동향을 파악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전체 논문 중 26.3%를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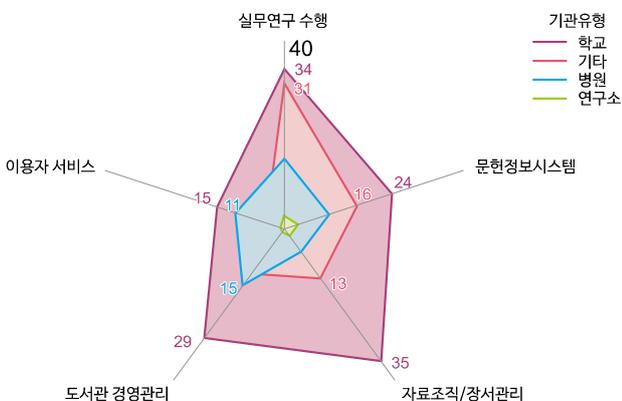


그림 3. 소속 기관 유형별 주제 분류 분포

지한 실무연구 수행(64건)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문헌정보 시스템(51건), 자료조직 및 장서관리(51건), 도서관 경영관리(48건)가 각각 21%를 차지하였다. 반면, 이용자 서비스(29건)에 관한 논문

은 11.9%로 가장 적게 출판되었다. 그중에서 크게 관심을 받은 주제로 실무연구 수행의 도서관 및 관련 학문의 동향(22건)과 학술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21건), 문헌정보 시스템의 오픈 액세스 및 학술데이터베이스(21건)와 디지털 도서관 및 자동화(20건), 자료조직 및 장서관리의 메타데이터 및 인덱스(21건)와 컬렉션 개발 및 관리(19건), 도서관 경영관리의 유관기관 네트워크(23건), 그리고 이용자 서비스의 참고봉사·연구지원 서비스 등(19건)에 관한 논문이 각각 약 20편으로 전체 논문의 8~9%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실무연구 수행의 사용자 행동 및 정보 탐색(15건), 도서관 경영관리의 도서관 역할 및 관련 법규(10건)와 인적자원 관리(10건)가 각 10편 이상 출판되었다.

나아가 중분류 주제에 따른 연구 유형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실무연구 수행 중 학술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14건)과 사용자 행동 및 정보 탐색(12건)에 관한 논문은 주로 새로운 연구논문의 형태로 출간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용자 서비스 중 참고봉사 및 연구지원서비스의 경우에도 연구논문(10건)이 우세하였다. 반면, 문헌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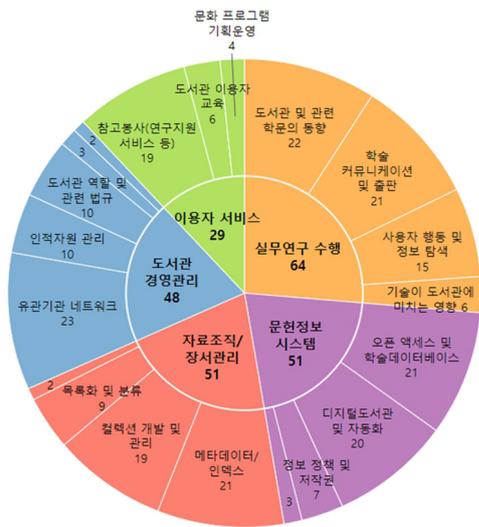


그림 4. 주제 분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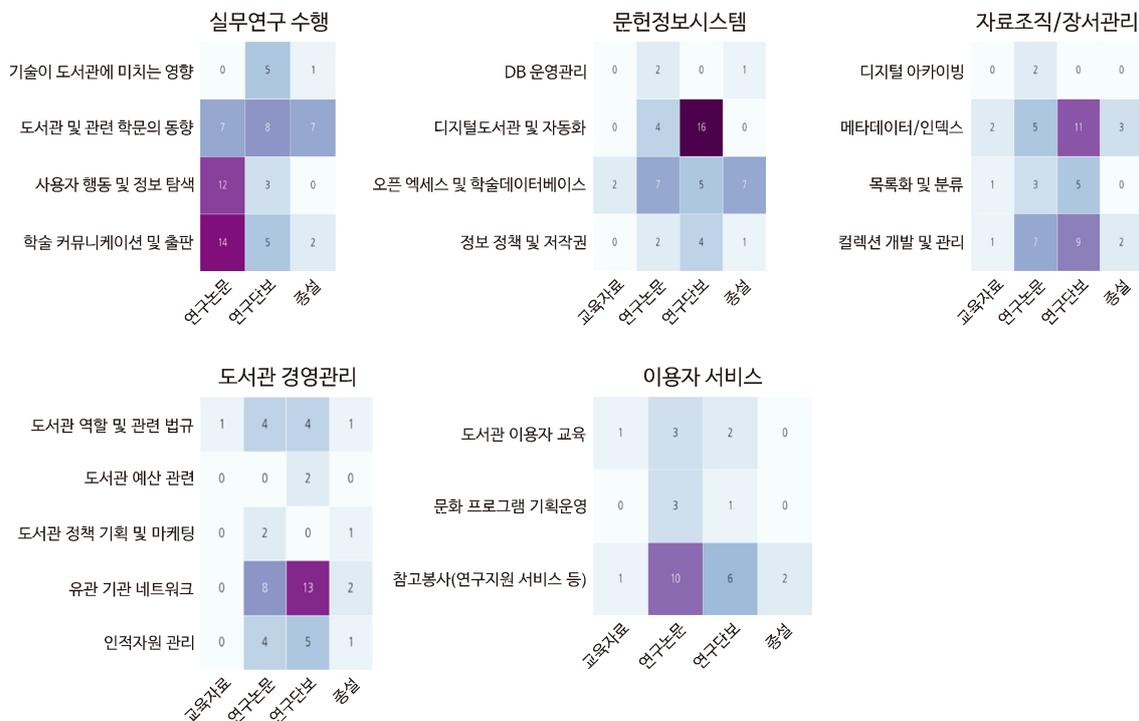


그림 5. 중분류 주제별 연구유형 분포

시스템 중 디지털 도서관 및 자동화에 관한 논문은 연구단보(16건)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으며 자료조직 및 장서관리 중 메타데이터 및 인덱스(11건)와 도서관 경영관리 중 유관기관 네트워크(13건)의 경우에도 연구단보 유형이 많았다. 연구논문, 연구단보, 종설의 다양한 유형이 균등하게 생산된 주제로는 실무연구 수행 중 도서관 및 관련 학문의 동향(7건, 8건, 7건)과 문헌정보 시스템 중 오픈 액세스 및 학술데이터베이스(7건, 5건, 7건)가 있다.

2) 키워드별 분석

그림 6과 그림 7은 2편 이상의 논문에 출현한 키워드들 중 특징적이지 않은 “의학도서관”을 제외한 204개의 키워드들에 대하여 총 10개의 클러스터(resolution=0.8)

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와 이를 클러스터별로 각 키워드가 출현한 논문들의 평균 출판 연도에 위치시킨 타임라인 그래프이다.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의 타임라인 그래프에서 전체적인 연구 트렌드를 살펴보면, 중분류 주제어인 “학술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1, “도서관 및 관련 학문의 동향” 중심의 클러스터 #2, 그리고 “참고봉사 및 연구지원서비스” 중심의 클러스터 #3이 상대적으로 전기간에 걸쳐 연구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6). “디지털 도서관 및 자동화” 중심의 클러스터 #4의 경우, 키워드들의 평균 출현연도가 1990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관련 논문들이 단기간 동안 활발하게 출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메타데이터 및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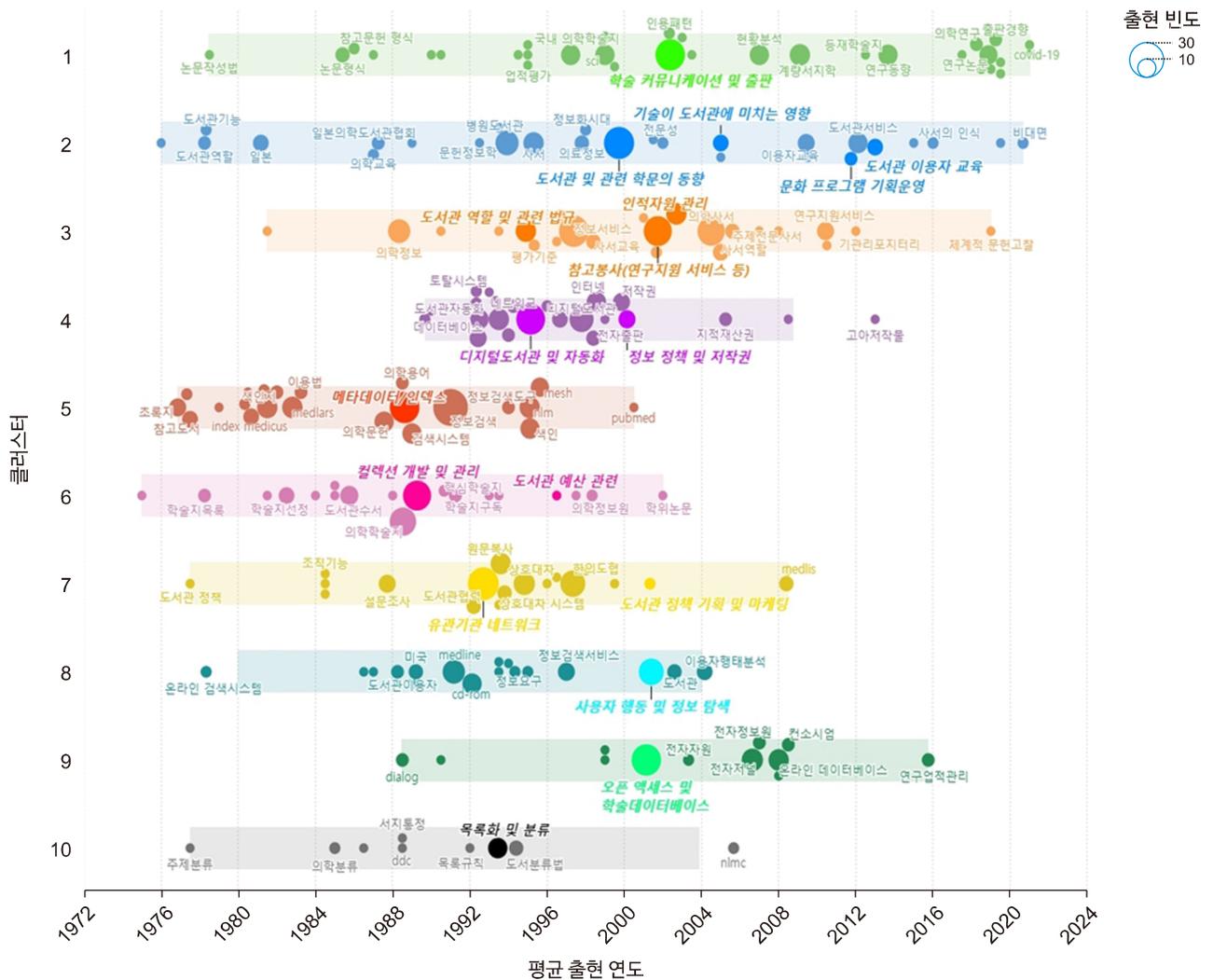


그림 6.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의 타임라인 그래프.

등의 키워드가 논문에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도서관 및 관련 학문의 동향” 중심의 클러스터 #2에서는 중분류 주제어 “기술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이어서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도서관 이용자 교육”이 함께 나타났다. 초기에 “도서관 기능”, “도서관 역할”, 특히 “일본”과 관련된 논문을 시작으로 “병원도서관”, “사서”를 비롯하여 “정보화시대”, “의료정보”, “전문성”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으며, 최근에는 “이용자교육”, “도서관서비스”, 그리고 “비대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참고봉사 및 연구지원서비스” 중심의 클러스터 #3은 중분류 주제어 “도서관 역할 및 관련 법규”에 이어서 “인적자원 관리”가 함께 연관되었고, 주요 키워드로 “의학정보”, “정보서비스”, “의학사서”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사서교육”, “사서역할”, “주제전문사서” 등이 포함되었으며, 최근에는 “연구지원서비스”, “기관리포지터리”, 그리고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도서관 및 자동화” 중심의 클러스터 #4에서는 “정보 정책 및 저작권”이 관련된 중분류 주제어로 나타났으며, 키워드로는 “도서관자동화”, “데이터베이스”, “도탈시스템”, “디지털 도서관”과 “네트워크”, “인터넷”을 비롯하여 “전자출판”, “저작권”, “지적재산권”, “고아저작물”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클러스터 #5에서는 “메타데이터 및 인덱스”를 중심으로 “정보검색”이 주요 키워드가 되었는데, “초록지”, “참고도서”, “INEDEX MEDICUS”, “색인지”, “MEDLARS” 등이 초기 논문들에 등장하였고 이어서 “검색시스템”, “MESH”, “NLM”, “색인”, 그리고 “PUBMED”가 나타났다. 클러스터 #6에서는 “컬렉션 개발 및 관리”와 주요 키워드인 “의학학술지”를 중심으로 중분류 주제어 “도서관 예산 관련”이 관련되어 나타났으며, “학술지 목록”, “학술지 선정”, “도서관수서”, “핵심학술지”, “학술지 구독” 등이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유관기관 네트워크” 중심의 클러스터 #7에서는 중분류 주제어 “도서관 정책 기획 및 마케팅”이 함께 나타났으며, “상호대차”와 관련하여 “도서관협력”, “원문복사”, “상호대차 시스템”, “한의도협”, 그리고 “MEDLIS”에 대한 논문이 주로 출판되었다. “사용자 행동 및 정보 탐색” 중심의 클러스터 #8에서는 특징적으로 “MEDLINE”과 “CD-ROM”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외에 “정보요구”, “정보검색서비스”, “이용자행태분석”이 키워드로 나타났다. 또한 “오픈 액세스 및 학술데이터베이스” 중심의 클러스터 #9에서는 초기에 “DIALOG”가 등장한 후, “전자자원”과 관련하여 “전자저널”, “전자정보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컨소시엄” 등이 키워드로 나타나고, 이어서 “연구업적관리”에 대한 논문이 출간된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록화 및 분류” 중심의 클러스터 #10의 키워드로는 “의학분류”, “서지통정”, “DDC”, “도서관분류법”, “NLMC” 등이 포함되었다.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7을 살펴보면 각 클러스터가 서로 가까이에 위치하여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클러스터들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일부는 앞서 그림 6의 타임라인 그래프를 참고했을 때 하나의 클러스터가 다른 클러스터 주제로 발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에서 “학술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1은 밀접하게 위치한 “컬렉션 개발 및 관리”와 “의학학술지” 중심의 클러스터 #6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타임라인 그래프를 해석하면, 의학학술지에 대한 연구가 컬렉션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초기에서 다양한 주제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과 관련하여 확장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 및 관련 학문의 동향” 중심의 클러스터 #2는 “참고봉사 및 연구지원서비스”와 “정보서비스”, “의학사서”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3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유관기관 네트워크”와 “상호대차” 중심의 클러스터 #7 또한 두 클러스터와 가까이에 위치하였다. 타임라인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는 도서관 및 관련 학문의 동향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한 관심에서 의학사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정보서비스 즉, 참고봉사 및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도서관 및 자동화” 중심의 클러스터 #4와 “사용자 행동 및 정보 탐색” 중심의 클러스터 #8의 연관성을 볼 수 있으며, “오픈 액세스 및 학술데이터베이스” 중심의 클러스터 #9는 두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및 인덱스”와 “정보검색” 중심의 클러스터 #5와도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학술지인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에 1974년부터 2022년까지 Vol. 1에서 Vol. 49의 수록된 총 24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데이터는 창간호부터 2022년까지 발행된 문헌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하여, 논문의 생산량, 연구유형 및 저자의 분포, 연구주제라는 4개의 분석 단위로 내용분석과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의 생산량은 임의로 분석 기간을 나누어서 해당 출판 기간의 총 생산량과 연구 유형별 및 주제별 생산량, 그리고 소속 기관별 생산량을 분석하였다. 논문의 저자 공동연구 현황은 논문에 참여한 개별 저자의 수를 집계하여 구분하여 보았다. 연구 주제는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문헌정보관리 기준을 근거로 대분류와 중분류로 나누었고, 논문의 주제별 분포를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는 총 243편을 생산하였고, 생산량에 있어 특징적인 부분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10년간의 출판량이 초창기 20년간의 출판량의 90%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1992년부터 4년간은 71편이 생산되어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3기(77편)와 거의 같았다. 1990년대 들어 정보화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학 분야의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되었다. 의학도서관도 해당 시기에 관련 연구생산이 많아지면서 출판물의 증가를 가져왔다. 의학도서관은 의학연구자들의 정보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자료의 최신성 유지와 서비스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학문의 목적은 현상을 발전하게 하는 데 있다고 봤을 때, 의학도서관은 학문적 이론을 기반으로 업무 향상을 도모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상호대차 시스템의 도입을 들 수 있는데, 협회는 1996년에 의학학술지종합정보시스템(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 MEDLIS)을 개발하고 1998년에 정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내 주요 공공상호대차 서비스(RISS, NDSL, KORS)가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서비스가 개시된 것에 비교하여도 선도적인 면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로는 연구 주제와 연구유형이 다양화되는 등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반면 논문의 생산량은 연간 1회 4편으로 정체되고 있다. 연구생

산성은 학술지를 정규적으로 발간하는 데 있어 필수 항목이며,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문학술지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협회는 학술적 성격이 명확하도록 잡지명을 두 차례 변경하고, 연구출판물의 형식을 갖추도록 투고규정을 보완해 나갔다. 사서들에게는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의학사서자격제도에 논문출판에 관한 가산을 추가하고, 2012년부터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선정된 연구에 대해 연구비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게재되는 논문의 수가 증가되지는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속 기관별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는 상위 9개 기관에서 150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생산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논문의 생산량이 많은 9곳 중 병원도서관은 1곳에 불과하였고, 대학도서관이 상위에 포진하여 있었다. 중소병원 도서관실은 1인 사서가 모든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며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비해 대학도서관은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며, 사서의 교육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학술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병원도서관도 27개소가 참여하여 논문을 생산하였고,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다 발전된 의학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원 소속인 도서관에서 기관 유형별 논문 생산율은 각각 대학도서관 29.4%, 병원도서관 27.2%, 연구소 도서관 30.7%로 학술논문 출판에 참여한 도서관의 비율은 높지 않다. 기관마다 놓인 상황과 여러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다 많은 현장 사서들이 고유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출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 유형면에서 창간호부터 제20권까지는 연구단보의 출판량이 52편, 교육자료가 8편으로 20년간의 생산량의 68.9% (60/87건)를 차지한다. 제21권부터 제30권까지는 교육자료가 없었으며, 종설 16편, 연구논문 36편으로 해당 기간 생산량의 67.5% (52/77건)로 나타났다. 이는 학술지의 초기는 의학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정책적 이슈에 관한 주제의 연구단보와 연구자료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분석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출판 년도를 10년의 주기로 보았을 때 1994~2003년은 출판량의 36.4%, 2014년부터 최근까지는 26.3%로 연구논문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학술지

의 초창기는 전문가 및 학자들이 도서관계에 최신 동향을 전달하는 데 중점이 되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서들의 실무연구가 수행되고 학술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초창기보다 연구논문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단보와 종설도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특히 연구단보의 경우는 출판연도의 분석 기간별 최근 10년을 제외하고는 평균 20편 정도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연구단보는 사서들의 교육 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유형 형식이라 볼 수 있다. 협회의 의학도서관의 사서들은 중소기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비율이 높은 만큼 1인 사서 체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은 사서의 역량에 좌우되지만, 규모가 작은 도서관은 사서의 교육 기회가 적고 및 업무 경험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직무능력의 신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것은 사서들 간 상호협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술적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사서들이 연구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낮추고, 개별 기관의 성공적인 서비스 사례나 새롭게 도입된 업무를 소개하는 데는 연구단보가 적절하다고 보인다. 또한 연구논문도 여러 연구 유형이 있는 만큼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로 사전연구부터 시작한다면 보다 수월할 것이다. 한편, 교육자료의 경우 1993년 이후로는 1편 이하로 발표된 것으로 보아 연구유형 형식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교육자료 연구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며, 정의에 따르면 도서관 교육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교육 접근 방법은 메뉴얼이나 기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연구논문의 출판 유형은 각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다르며, 다양한 형식이 있으므로 재검토 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논문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의 학술적 방향을 재정립하는데도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셋째, 저자의 연구 현황을 분석해보면 본 협회지에는 총 97개 기관의 저자가 논문을 발표하였다. 『2023 한국 의학도서관 회원현황』에 의하면 의학도서관은 152개소이며, 그중 48곳의 의학도서관 사서가 논문을 발표하였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연구자는 49곳에서 연구 논문을 생산하여 회원소속 저자의 연구참여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외부 연구자가 각 전문분야의 식견으로

의학도서관계에 활용될 연구를 발표한 부분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전체 회원기관 대비 의학도서관의 31.5%만이 저자로 참여한 것은 다소 저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의학도서관의 저자가 다양한 시각 및 새로운 관점에서 현장에 적용할 학술적 발견을 찾아 연구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협회가 내부 연구자를 발굴하고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도 연구 성과를 발표할 동기를 지속하여 불러일으킨다면 협회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에 있어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저자 간의 협업에 비해 매우 높았다. 최근 학계의 학술연구 활동은 연구자들 간의 협업과 다방면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연구데이터 분석 결과 단독저자의 비율은 81.9%이고, 공동저자는 18.1%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공동저자의 논문 중 서로 다른 기관이나 학문 영역의 연구자가 함께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총 생산량의 7.0% (17건)였다. 그중 의학도서관 내 저자들의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75.0%였는데, 연구 분야에 대한 학문적 일치도가 높고 협회 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자 간의 협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경우 기관 유형별 중점 서비스나 운영 형태가 다르므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부 연구자들 간의 협력 연구 역시 새로운 측면에서 제시한 이론과 연구 결과를 통해 도서관 내부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돕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발표된 공동연구 논문의 수는 적었지만 2010년대 이후로 공동연구 중 43.2%가 생산된 점은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연구 주제가 다변화되고 연구논문 형식 유형의 논문이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연구주제 면에서 학계에선 정보학의 부상과 더불어 관련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주제연구에서 지식 전달 차원의 연구단보나 종설의 경우보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논문 형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보다 기술변혁으로 인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학제 간의 융합이 확대되고 있다. 문헌정보학자를 비롯한 도서관 실무자들도 다양한 전문가들과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하고, 전문 지식을 나누며 연구를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해 질 것이다. 아직은 소수

의 경우지만 의학사서들 간 경우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 및 유형 간의 연구자의 협력이 활발하게 된다면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연구 주제는 발행 기간을 5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1974~1992년까지인 1기부터 4기까지는 자료조직/장서관리 27편(36%), 도서관 경영관리 19편(25%), 실무 연구 수행 15편(20%)으로 해당 기간 총 생산량의 80%를 차지하였다. 이후 1993년부터의 2003년까지인 5~6기의 연구 주제는 문헌정보시스템 31편(37%), 도서관 경영관리 11편(13%), 실무연구 수행 19편(22%)으로 총 생산량의 73%였다. 시기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이 본격화되면서 도서관 네트워크와 온라인 목록이 증가하여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이후 연구 주제면에서 정보학처럼 급진적으로 발전한 분야가 없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다. 학문의 급속한 발전은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지므로 연구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6~8기인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실무연구수행의 비율이 77.1%로 가장 높고, 자료조직/장서관리 주제는 27.1%로 가장 낮게 연구 과제로 선정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료조직/장서관리는 초기에 비해 연구 중심에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실무연구 수행의 경우 초기 25년보다 이후 20.8% 높아진 비율로 연구되었으며, 연구 주제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총 생산량의 26.3%였다. 실무연구는 실무자가 볼 수 있는 관점을 통해 현장과 학문을 이어서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적인 면에서 이용자서비스는 11.9%로 가장 저조하게 생산되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관련 연구에서 의학도서관이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2019년부터 대학도서관진흥계획에 따라 연구의 질에 대한 서비스 강화가 추진 과제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주제전문사서와 연구지원 서비스가 이슈화되면서 관련 연구가 수행된다. 연구논문 중 연구지원이란 용어가 등장한 시기는 2006년이며, 키워드 동시출현 타임라인의 클러스터 #3에서 연구지원서비스의 평균 출판 연도는 2010년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주제전문사서와 의학사서 역할에 대한 부분도 이 시기에 나타났다. 의학분야는 연구 발전 속도가 빠르므로 임상연구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신속한 학술출판이 필요하고, 연구지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주제전문사서로 독보적

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의학사서들이 수준 높은 연구결과를 활발히 생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동향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미시적으로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정한 경향이 있었다. 먼저 학술 커뮤니케이션 출판과 기술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의 클러스터는 전 기간에 연구 주제로 관심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디지털 도서관 및 자동화나 컬렉션 개발 및 관리, 목록과 분류, 메타데이터/색인 같은 부분은 시대적으로 도서관과 학계의 학문적 이슈에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이 전통적인 수서, 목록, 정보검색/제공 등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확연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지능화 사회에서 도서관의 서비스도 많이 변모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은 기존의 업무 영역에서 나아가 창조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사서는 이전과는 또 다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연구 주제 분석 결과 의학도서관은 시대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해 왔으며, 전문성을 강화해 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데이터에서 일정한 경향을 파악하여 과거를 통해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는 의학사서의 자질 향상과 의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아젠다를 제시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적응하며, 발전해 온 의학도서관의 지향점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가 전문학술지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외연의 확장이 필수불가결해 보인다. 의학도서관협회지를 통해 우수한 연구물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도서관협회의 전략적인 학술지 관리와 연구 독려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이해관계

해당없음.

논문의 발표, 투고내용

해당없음.

REFERENCES

1. Seo EG, Lee WK, Park EK, Lee OS. Informetric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Biblio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5;26(3):315-343. Korean.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3.315>
2. Kang MH, Kim JH.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4;45(4):457-482. Korean. <https://doi.org/10.16981/kliss.45.4.201412.457>
3. Lee MH. Recent trends in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02;36(3):287-310. Korean. <https://doi.org/10.4275/KSLIS.2002.36.3.287>
4. Ko JH, Kang WJ, Lee JW. Research trend analysis of digital divide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21;52(4):179-203. Korean. <https://doi.org/10.16981/kliss.52.4.202112.179>
5. Cha SJ. A study on improvement of NCS duty compon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by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and uti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6;50(3):215-247. Korean. <https://doi.org/10.4275/KSLIS.2016.50.3.215>
6. Kang IS, Kim HJ. Analysis of 'digital divide' research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20;37(2):333-352. Korean. <https://doi.org/10.3743/KOSIM.2020.37.2.333>
7. HRD Korea.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Internet]. Ulsa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Korea; 2023 [cited 2023 Aug 31]. Available from: <https://www.ncs.go.kr/unity/th03/ncsResultSearch.do>
8. Saggion H, Lapalme G, editors. Selective analysis for automatic abstracting: evaluating indicativeness and acceptability. *Proceedings of the RIAO '00: Content-Based Multimedia Information Access; 2000 Apr 12-14; Paris, France*. New York (NY): ACM; 2000. pp. 747-764.
9. Babaii E, Taase Y. Author-assigned keywords in research articles: where do they come from? *Irani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013;16(2):1-19.
10.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subject heading system [Internet].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3 [cited 2023 Aug 31]. Available from: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20201000000.do>
11. Lee HK, Yang KD, Kim SW. Analysis of collaborative research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9;50(2):191-214. Korean. <https://doi.org/10.16981/kliss.50.2.201906.191>